

‘오월 노래’ 14곡 음반으로 부활

원곡 형태로 복원...노래 탄생 배경·구술 자료 등 담겨 원작자들이 부르고 민중가요 ‘동지’는 원작자도 찾아 다음달 발매...오늘 5·18송년음악회서 5곡 음원 공개

임을 위한 행진곡, 동지(가), 투쟁의 한 길로, 광주 출전기...

1980년 5·18광주민주화쟁 이후 5·18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을 위한 자리에서 가장 많이 애창됐던 ‘오월 노래’들이 한 장의 음반에 묶여 발매를 앞두고 있다.

오월 노래 음반제작의 총감독을 맡은 작곡가 박종화(52) 씨는 올 초 5·18기념재단의 의뢰를 받아 시작한 음반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원작자들이 소개하는 수록곡 14곡의 노래 탄생 배경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술자료도 70~80쪽 분량의 책자 음반으로 나온다. 다음달 정식 발매 예정인 음반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출전기 ▲오월

의 노래 1·2 ▲꽃아 꽃아 ▲들불 ▲그날이 오면 ▲동지 ▲친구2 ▲광주여 무등산이여 ▲누가 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구할 것인가 ▲투쟁의 한 길로 ▲금남로 사랑 ▲목련이 진들 등 총 14곡이 수록됐다.

이번 앨범은 지난 30여 년간 작자 미상으로 떠돌던 오월 노래와 민중가요의 작사가·작곡가가 정식으로 이름을 올린 첫 음반이다.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겠다”라는 노랫말로 유명한 민중가요 ‘동지’는 이번 작업을 통해 원작자가 밝혀졌다.

박 감독은 서달간 수고료만 끝내 전남대 85학번 박철환씨가 통기타 하나로 만들었

던 ‘동지’가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로 성지순례를 나섰던 80년대 대학생들의 입을 통해 전국으로 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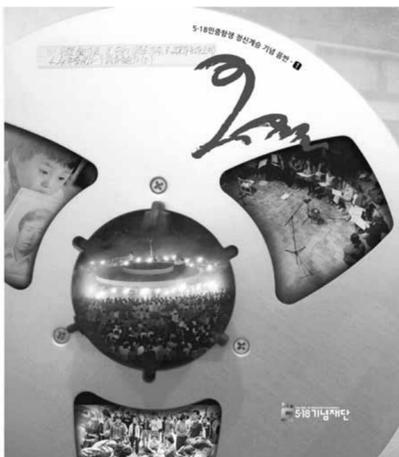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오월 노래가 원곡의 형태로 복원된 것도 이번 작업의 성과 중 하나다.

박 감독은 “25년간 보관해온 릴테이프에서 지난 2013년 입점한 민중가요 ‘친구2’의 원작자 범승(정세현) 스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살려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감독은 시흥동안 고장 난 아날로그 재생 장치를 분해하고 부품을 뒤야했다고 한다. 릴테이프에 담긴 범승 스님의 목소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재생장치(녹음장비)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5·18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 노래를 작곡한 김중률(57) 광주 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직접 노래했다.

5·18 기념재단은 오월 노래 음반 발매에 앞서 28일 오후 4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송년음악회를 열어 ▲임을 위

- 5·18민중항쟁 송년음악회 기념 음반
01. 그날이 오면 / 호남신학대학교 콘서트코어.
 02. 오월의 노래2 / 신상근.
 03. 들불 / 김은진.
 04. 동지 / 김원준, 박문용, 정용우, 주하우.
 05. 광주여 무등산이여 / 서태경.
 06. 임을 위한 행진곡 / 김중률.
 07. 광주출전기 / 박성환, 백 가, 이광석, 정영훈, 최은호.
 08. 친구2 / 정세현.
 09. 투쟁의 한 길로 / 호남신학대학교 콘서트코어.
 10. 금남로 사랑 / 박영희.
 11. 누가 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구할 것인가 / 허영택.
 12. 꽃아 꽃아 / 박종화.
 13. 목련이 진들 / 문진오.
 14. 오월의 노래1 / 정아리.



한 행진곡 ▲친구2 ▲오월의 노래2 ▲그날이 오면 ▲동지 ▲금남로 사랑 등 5곡의 음원을 먼저 공개한다.

박 감독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오월 노래와 민중가요를 한 자리에 묶고 노래에 담긴 뜻과 만들어진 배경을 이야기로 엮어 역사의 기록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작업의 성과”라고 말했다.

5·18기념재단은 1980년대 노래 14곡으로 된 첫 번째 음반에 이어 오는 2017년까지 1990년대 노래 12곡, 2000년대 노래 12곡을 각각의 음반 형태로 담아내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해상케이블카 승강기 고장 14명 48분만에 구조

여수 해상케이블카 주차타워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관광객 14명이 갇혔다가 40여분만에 구조됐다.

27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9분께 여수시 수정동 해상케이블카 주차타워 엘리베이터가 하강 중에 고장이 나 관광객 14명이 갇혔다. 사고 엘리베이터는 하강하던 중 6층과 7층 사이에 멈춰서, 119구조대는 사다리를 이용해 사고 48분만인 오후 4시 17분께 관광객을 전원 구조했다.

관광객은 임신부 3명을 포함해 여성 5명과 남성 9명이었으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배안서 선장 숨진 채 발견

완도 해상에 떠 있는 1t급 선박에서 60대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완도해안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께 완도군 청산도 남쪽 180m 해상에서 선장 A(64)씨가 자신의 1t급 선박에서 숨져 있는 것을 완도해경이 발견했다.

해경 관계자는 “인근을 지나던 배가 신고해 출동을 하게 됐다”며 “특별한 타살 흔적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해경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도=정은호기자 서부취재본부장

이흥하씨 폭행 재조사 상해 혐의 추가 기소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고도소에 수감 중인 이흥하(76) 서남대 설립자를 폭행한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광주지검은 이씨를 폭행한 재소자 박모(48)씨를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8시에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5인실 치료 병실에서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치료 병실에 함께 있던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만류하던 이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이씨는 턱뼈와 갈비뼈 골절, 복막 출혈 등의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다가 지난 10월20일 재수감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아내 이송 구급대원 때린 남편

○...교통 사고로 당한 50대 남성이 술 기운에 자신과 아내를 병원까지 이송해준 구급대원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 경찰서행.

○...27일 목포경찰청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목포시 상동기동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해준 구급대원 B(31)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

○...A씨 등은 이날 연달 모임에 참석했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당해 병원을 찾았는데,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병실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병원측의 말에 애꿎은 구급대원에 화풀이를 했다”고 설명.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신고 지역 벗어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실행

신고 지역을 벗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강식품 판매업자 강모(5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강씨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임모(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건강기능식품 영업팀장과 팀원 등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말부터 4월8일까지 양

평지역 시장 일대에서 홍삼제품 2개를 33만원에 파는 등 경기도와 서울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월 평균 6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광주와 대전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과 방문판매업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은 기존에 신고한 지역을 벗어나 영업하려면 그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26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양동 건어물시장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소방관들이 점포 안 집기류 등을 꺼낸 뒤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광주서부소방서 제공>

양동시장 상인들이 대형화재 막았다

화재 발견부터 초기 진화까지 침착 대응 불길 잡아 10여분만에 점포 5곳 전소...근본적 예방 대책 시급

“한밤중에 불이 났더라면 양동시장이 다 탈 뻔했습니다. 이번엔 운 좋게 상인들이 초반에 불길을 잡았어요.”

지난 26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건어물시장. 시장이 파할 무렵 닫힌 S상화 건너 구멍 사이로 불길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옆 건물 동진상화 주인 이동환(70)씨 눈에 들어왔다.

“불이야! 불이야! 건어물 시장에서 불이 났다.” 다급한 외침에 건어물시장과 3m도 낫을 사이에 둔 수산시장 상인 박정웅(50·대성수산) 등 3명의 상인이 소형 분말소화기를 들고 뛰어왔다. 문이 열쇠로 잠긴 탓에 박씨 등 상인들은 서터에 난 손가락 두어 개 크기의 구멍 사이로 실재없이 소화기를 뿌렸다. 소형 소화기(3kg들이) 3대와 공용 소화기 2대(20kg들이)가 뿌려질 때 양 동진상화 상인들로 구성된 10여명의 의용소방 대원들이 소화전과 연결된 호스를 끌고 와 함께 불길을 잡았다.

상인 20여명이 불길을 잡는 동안 30m떨어진 건어물시장 한 귀퉁이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편태비(68)씨는 시장 천정을 가리키는 아케이드를 열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시공된 아케이드는 손님들이 걸어 다니기 위해 닫혀 있었지만 화재가 날 경우 연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양동시장의 경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비가림이 열리게 돼 있어 닫혀 있던 연기는 편씨가 누른 버튼 덕에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불은 화재의 발견, 초기 진화, 의용소방대 출동, 아케이드 개방(연기 배출) 등 조동 조치가 특별한 장비도 없는 상인들에 의해 10여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양동시장은 대형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날 화재는 초동 조치가 잘돼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불길이 시작된 S상화와 인접한 5곳의 점포가 사실상 전소된 점은 소방당국과 서구청, 상인회 등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전기 배선이나 수십년 된데다 점포가 1930년대 지어진 목조건물이라서 언제든 불이 날 수 있다. 또 시장 전체 점포 1200여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잠시 간에 불길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고를 접수(7시12분)하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자정까지 철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물을 뿌려 댔던 이유도 바로 건어물 시장이 목조건물인데다 가연성 물질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상인들이 화재 발견부터 초기 진화까지 침착하게 잘 대응해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시장 통로 상층부에 열 감지기가(70도 이상 반응) 설치돼 있다고 해도 초기 발견에 실패한다면 언제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화재 예방대책과 화재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누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목포 도심 멧돼지 출몰...인명 피해는 없어



지난 25일 목포시 옥암동의 한 교회 인근에 출몰한 멧돼지가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에 잡혔다. <인터넷 카페 '목포맘들의 수다방' 제공>

목포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나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목포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50분께 목포시 옥암동의 한 교회 인근에서 멧돼지 한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9건이나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순찰차 6대와 소방차 3대, 포획 전문가 4명, 기동타력대 6명 등 인력 30여명을 동원해 평화광장과 초당산 주변을 2시간 동안 수색했으나 멧돼

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목격자들은 60kg가량으로 추정되는 이 멧돼지는 교회 인근 골목과 8차로 도로를 1시간가량 돌아다니다 차에 치인 후 부주산 방향으로 사라졌다.

당시 교회에서는 성탄예배 중이었으며, 멧돼지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멧돼지가 사라진 부주산 등산로의 통행을 통제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사건번호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비고
2015타경 1738	장흥군 장흥읍 경산리 639-2 가동 4층 4031 아파트	65,000,000	
2015타경 1820	광진군 광진읍 명동2길31, 101동 6층 608 아파트	91,000,000	
2015타경 1585	장흥군 장흥면 원리 222 374㎡	90,633,480	일괄매각, 수목 및 조경석모형, 매각 재외농가농생양고 11호소재
2015타경 1912	광진군 마량면 마량리 797 165㎡	22,200,000	일괄매각
2015타경 1073	장흥군 장흥읍 경산리 227-2 664㎡	36,392,000	일괄매각, 농지취득허가없음

사건번호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비고
2015타경 1554	1 장흥군 유치면 덕산리 산65 16660㎡	11,127,600	
	2 동소 산87 13190㎡	8,837,300	분묘소재
	3 동소 산100 18446㎡	10,883,140	
2015타경 1646	1 광진군 직전면 봉기리 566 367㎡	5,311,000	광주대우주매각포 5,311,000원
2015타경 1769	1 광진군 삼전면 활리리 745 1868㎡	18,770,900	일괄매각, 농지취득허가없음
2015타경 5150	1 광진군 도량면 불굴리 산175-5 18032㎡	10,458,560	분묘소재여부확인

○...교통 사고로 당한 50대 남성이 술 기운에 자신과 아내를 병원까지 이송해준 구급대원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 경찰서행.

○...27일 목포경찰청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목포시 상동기동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해준 구급대원 B(31)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

○...A씨 등은 이날 연달 모임에 참석했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당해 병원을 찾았는데,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병실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병원측의 말에 애꿎은 구급대원에 화풀이를 했다”고 설명.

2015. 12.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법보좌관 권혁민**